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마 4:1-7)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영적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유혹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아름다움과 축복과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Second Temptation of Jesus (Matt. 4:1-7)

Owing to one person, Adam who committed sin, the entire human race entered into permanent death. However, through Jesus Christ, Son of God, who is also entirely human, overcame temptation from Satan and achieved the His mission of salvation by obeying God's word.

What is 'born again'? It means that a new life which did not exist before, begins anew. We can start to see what was not seen before. If we live our life with God's word and are spiritually filled with it, we are easily able to defeat the temptation of the world. That is why a person who is born again realizes the beauty of the word from God's mouth and the glory of blessing.

1. 뛰어내리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6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사탄은 시 91:12의 말씀을 인용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7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틀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받는 영광에 눈이 가려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row yourself down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v. 6)

The second temptation of Jesus was to throw Himself down from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but a prior condition here was, ‘If you are the son of God’. By citing the Psalm 91:12, Satan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throw yourself down, because the angels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not to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Satan knew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Satan didn't want people to rely on Him. The worst thing Satan didn't want, however,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Satan knew that Jesus would be proven to be the son of God through the cross.

2. Do not put your God to the test!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v. 7).

Jesus always defeated temptation by the word of God. Even when Satan tempted Adam and Eve, God clearly said that they were not to eat only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Satan asked if God had said that they were not to eat from any of the fruit of the trees in the Garden of Eden. Satan, then, makes question and test God: “Will God do it for us or not? Does He really love us or not? Does He help us or not?” This is the method of Satan that makes us doubt and put God to the test.

What does it mean when Jesus says “Don't put your God to the test!”? It means that because of God's unchanging presence and covenant for us, God is not to be tested.

My beloved Christians!

Questioning God to go a different way means to directly put God to the test. Jesus believed God would save Him and so there was nothing to prove in testing it.

When tests are approaching us, we must defeat temptation to question the truths of what God has told us. And I hope you will only look at Jesus who defeated temptation with the His word, “Do not put God to the test!”

Moreover, I hope your eyes are not covered by the delusion of worldly glory, so you can have victory with God's word. Consequentl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Christians who do not put God to the test but trust in God's covenant forev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2 홍해작전 승리의 행군 계속 돼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홍해작전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성도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울교회 공식 페이스북 '익투스' (<http://fb.com/seoulichthus>)에 접속하여 사진을 등록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익투스에 게시물 공유를 요청하여도 된다. 등록된 사진은 호응도를 기준으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교인 '회.복.부.흥'으로 4행시짓기, 영어예배부는 'B.R.I.D.G.E'로 6행시를 공모 중이다. 홍해작전기간 중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부는 7번, 대학·청년부는 14번 출석하면 출석상을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무시는 성도들을 위해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홍해작전 기간 중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특히 홍해작전의 일환 중에 하나로 지난 6월 10일 701호실에서 2012 홍해작전을 주제로 유년부(부장

김진환 집사)학생들의 그림그리기와 백일장 행사가 열렸다. 72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유년부 학생들은 저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는데 그림그리기 부문에서 영예의 금상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그린 3학년 서지희, 은상은 모세가 가르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한 2학년 김수민, 동상은 새벽에 성경책을 들고 홍해작전에 참석하는 단란한 4가족을 그린 1학년 윤주경이 차지하였다.

또한 고등부에서 실시된 홍해작전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1-2반 학생들의 작품은, 이번 홍해작전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준비시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개인과 가정 앞에 있는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갈라지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형상화 하여 그리게 되었다. 2012년 홍해작전을 통해 다음 세대인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모르드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한다.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개최

캄보디아단기선교(7월23일~7월31일), 인도네시아단기선교(8월2일~8월11일)를 위한 바자가 금주 6월17일(주)부터 8층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는 오지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의료, 미용, 교육 등과 전도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식량기근에 따른 심각한 영양부족, 의료시설이 전무한 가

운데 방치된 많은 환자들과 주민의 복음을 모르는 그곳 선교지 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란다. 바자물품은 화장품과 침구류 등 생활용품과 팀원들의 정성이 깃들인 맛있는 반찬들이 판매된다.

물품후원및 구입: 최금숙 집사 (010-2271-3742) 바자담당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3]

(문 48) 민12:3에서 모세는 자신의 은유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세가 친히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 :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의 기록으로 이것을 정말 모세의 기록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민수기 12:3에서 모세가 자신의 은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도 스스로 말씀했는지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모세 자신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잘 아는 어떤 이나 아니면 모세를 존경하던 어떤 이의 기록일 것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M.G. Kyle, Moses,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Grand Rapids: Eerdmans, 1939, p2090). Jamieson 같은 이들은 후기 예언자 중 어떤 이가 모세의 글에 삽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후11:5, 12:11-12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의 교활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듯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 (민11:17)이 임하여 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lmer Smick, Wycliffe Bible Commentary, p129)

선지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개관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성품에 관한 말씀까지도 그에게 계시된 것은 숨김없이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Haley(Alleged Discrepancies, p248)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자유롭게 기록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죄와 과오도 숨김없이 폭로시키고 있으며 자기 칭찬을 교만 없이 그리고 자기 저주를 겸손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 진술은 자기변명을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전(古典)으로 알려진 자서전 가운데 자신을 제3자로 비유하여 기록하기도 하고 3인칭을 써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12:3에서 모세의 은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도 모세의 자기 방어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처지에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후대의 해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다음주 계속)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우식집사(11교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곳에 서울교
회를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
다.

20여년 전 이미 서울교회를 준비 하여 주시고,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한 것 같이 서
울교회를 통하여 식어 가는 우리 민족의 신앙심
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으로는 30여년 섬기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때를 위하여 서울교회를 준비하
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게 해 주
심을 감사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
리 주위에 재수없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짐
을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물질 축복,
은사와 재능은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홍해 작전을 통하여 큰 변화 받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는 홍해!

이정현 성도(12교구)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
의 역사라는 부제처럼 저희
가정은 두 아이들과 함께 홍
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두 아
이와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일
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배가운
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
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육신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은 육신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잠이 부
족하여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고 작은 아이도
평소보다 많이 보채고 저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하루 설까 하는 마음으로 잠들기 전 큰아이
와 말씀카드를 보는데 잠언 20장 13절 말씀이었습니
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어쩔 이라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
씀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읽고 큰아이와 손을 잡고 잠
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새벽으로 아이들을 깨울 때 울거나 짜증내지

않고 잘 일어나 주며 유아
부에 가는 것이나 묻기도
하고 교회 가는 것을 즐겨
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
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제단에 앞드
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
시키시고 새 힘 부어주시며 저와 아이들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응답이 시작된 일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고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
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이 어린것이 무얼 알겠냐 싶기
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 어린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큰 믿음의 일꾼
으로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
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함께 건너갑시다.

천국시민양성 - 사랑부

우리 함께 찬양해요

박광옥 집사(사랑부 교사)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
제아래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기위해 새벽
부터 열심하신 성도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사랑부는 서울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주위의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져
서 급히 응급실을 찾아야만 했던 일,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 온 선생님들이 지하철역,
버스승강장을 찾아 헤메다 발견했던 일, 엘리
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실례를 하려 했던
일 등 우리 학생들로 인해 너무도 소중한
가슴 따뜻한 기억들도 많습니다. 팔이 짧지
만 너무도 당당했던 00, 겨울에도 저팔계안
경을 쓰고 경호원을 자처했던 00, 비록 약
보는 보지 못하지만 한번 듣고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00, 연애인들의 모든 춤을 소화해
내는 00, 운전하는 선생님보고 피곤하시죠
하면서 박카스 한 병을 건네던 00, 여러 성
도님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
한 사회 지도자로서 공무원이 된 00 등 지
면을 빌어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즐거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랑부에는 올해부터 작은 변화가 생겼
습니다. 차량운전을 하여 학생들을 수송하
기에 한계에 다다른 거죠. 또한 학생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서 우리 학생들
이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여 부모님
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여
러 친구들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도 앞섰
지만 주변에서 교회로 인도해주고 대신 호
산나대학 학생들과 교회주변의 학생들과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로 출석해 오고 계시
습니다.

그런데 사랑부 교사 중 찬양 인도와 반
주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
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갑이 가까워 오
신 권사님이 찬양율동을 하시구요, 또 다른
집사님은 몇 십년 전에 치시던 피아노실력
으로 반주를 하신 답니다. 또 그동안 잘 봉
사하시던 미술선생님은 9월이면 유학을 가
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사용할 성도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
다. 어서 오세요. 사랑부에서 '우리 함께 찬
양드려요. 기도드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
워가요.'



천국시민양성 - 청년부

청년부에 주시는 큰 기쁨

구진경 성도 (청년2부 회장)

한 해의 반을 걸어가고 있는 6월 청년2부는(87~83 또래) 많은 변화들 속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2부 부원 한 명 한 명 데이트와 번개로 시간을 가져주시며 너무나 친근하고 편하게 친구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고민이 생기거나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어려울 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들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다독여주고 계시는 오세광 목사님은 올 한 해 청년2부에 허락하신 큰 기쁨입니다.

또 하나 누리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일집회시간(매주 일 오후 3시20분 601호)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조안에 10~15명이 구성되어 정해진 40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나눠야했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다락방으로 세분화하여 한 다락방 안에 6~7명이 모이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다락방은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좀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락방 안에서 만



나게 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주는 다락방장들은 토요일모임시간(매주 토요일 오전9시 601호)을 통해 4개의 타운으로 만나 타운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다락방으로 묶여 삶을 공유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원들은 다락방장들이, 다락방장들은 타운장들이, 타운장은 목사님께서 케어해주시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2부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키폴을 하며 깨워주고 격려하여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2부를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주세요.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

대학부 홈커밍에 놀러오세요

이성화 성도 (대학부)

저희 대학부는 6월 23일 토요일에 홈커밍 데이를 가지게 됩니다. 대학부는 올 해부터 매달 4째주 토요일 501호에서 "비상구"라는 이름을 가진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구"의 첫 번째 의미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출구라는 뜻입니다. 대학부원들에게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교자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飛上求(날 비, 윗 상, 구할 구)"를 써서 '날아오르기를 구하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돋보이는 실력있는 대학부원들이 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6월에 있을 비상구는 좀 더 특별하게 [놀러와]라는 부제를 붙여서, 잘 출석하지 않은 대학부원들, 1·2·3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가는 대학부원들, 그리고 대학부를 거처한 청년분들(OB)을 대상으로 [1층 웨스턴스터홀]에서 홈커밍데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저자 조현영입니다. 그리고 대학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특별 순서도 마련되어 있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알고 계신 청년분들을 독려 하셔서 함께 도전 받고 젊은 세대로서의 열정과 사도함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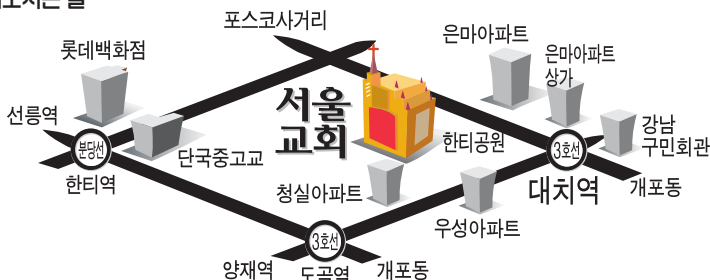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신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부장)이영 조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광파레 (Camp Kirkland 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W.H.Dane 곡)", "구주 예수의 지함이 (W.J.Kirkpatrick 곡)" 등 네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니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7일(주) 청주 동산교회 예배설교와 제직수련회를 인도한다.
- 개업: 12교구 홍성모 집사 노은아 집사 Valley's Coffee & Scone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 유스페이스2 121호 TEL 031-628-6710
- 득남: 12교구 이지수성도, 임경민 성도 (임상현 장로, 서희숙 권사 장녀 가정)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선교회(6.17) 바울선교회(6.24)
- 금주의 식사: 조영식 성도 이관모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되는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2.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에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하심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선교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3. 서울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를 통해 새벽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무수히 일어나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